

으로 판정하고 피부유형별 신체계측, 체성분 구성, 비만정도, 체형 및 스트레스정도의 차이는 SPSS11.0 (for Wi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피부유형은 중성>건성>지성 피부의 순으로서 젊은 여성은 중성피부유형 즉, 정상피부가 가장 많았다.
- 2) 체격지수 중에서 WHR가 낮으면 지성피부가 증가하고 반대로 높으면 건성피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 0.05$). 가족 중에 비만자가 있는 경우는 건성/정상피부군에 비해 지성피부군에서 많았고, 특히 어머니가 비만인 경우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3) 스트레스 점수가 높으면 중성피부보다는 건성/지성피부의 비율이 높았다($p < 0.05$).

이상의 결과에서 20세 정도의 여성은 대부분이 건강피부인 중성피부이지만 WHR가 크고, 어머니가 비만이 아니고, 스트레스가 크면 건성피부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이 결과는 젊은 여성이 건강한 중성피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으로 연구대상자를 더 많게, 연령층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연령층별 피부유형과 신체계측치나 스트레스정도의 관련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P1-20】

고지혈증 중년 남성의 영양소 섭취상태와 생활습관

최 미 자¹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01년 사망원인 통계결과를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사망자가 전체의 50.4%를 차지하여 우리나라가 식생활의 변화로 질병의 양상과 사망원인이 변하고 있으며 선진국형 질병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심장순환기계질환의 위험인자 중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신체활동 부족 등이 중요 인자로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구지역 평균 연령 46 ± 3.4 세의 성인 남성 중 공복의 혈 중 콜레스테롤이 200 mg/dl 혹은 중성지방이 200 mg/dl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사람을 고지혈증으로 간주한 43명과 그 이하인 정상인 76명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상태와 운동습관 및 식습관을 조사하여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상 성인 남성의 평균 혈 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은 166.4 mg/dl과 111 mg/dl였고 고지혈증 성인남자의 평균 혈 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219 mg/dl과 229 mg/dl였다. 정상 혈 중 지질을 가진 사람에 비하여 고지혈증인 사람은 체중(66 kg vs 62 kg), BMI (23.5 vs 21.8), RBW (108 vs 100), 수축기 혈압(124 mmHg vs 117 mmHg), 이완기 혈압(81.2 vs 74.9 mmHg)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혈당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평균 일일 영양소 섭취에서 정상과 고지혈증 성인 남자와 모두 열량, 칼슘, 비타민 B1, B2를 RDA 보다 부족 되게 섭취하였고 그 외의 영양소는 RDA 보다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일일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고지혈증 성인 남성과 정상남성이 각각 2305 kcal와 2171 kcal로 나타나 고지혈증인 사람들의 신체 활동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지혈증인 사람들 중 BMI 25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25이상의 경우가 43%로서 혈 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BMI 25 이하인 경우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234 mg/dl vs 215 mg/dl) (259 mg/dl vs 214 mg/dl) HDL-cholesterol의 농도는(48 mg/dl vs 43 mg/dl)차이가 없어서 심장질환의 위험율이 매우 높았다. 또한 열량의 섭취량은 BMI 25 이상인 경우 유의적으로 높았고(2304 kcal vs 2010 kcal),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유의적으로 낮아(2184 kcal vs 3525 kcal) 체중 감량의 교육이 요구되어지며 동시에 운동을 장려하여 에너지 소비의 증진이 요구되어진다. 생활습관에서 고지혈증 환자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낮았고 알코올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를 장려하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P1-21】

여성 유방암 환자의 영양섭취 실태와 생활습관조사

김미현¹ · 김은영 · 천누리 · 홍영선¹ · 전해명² · 승정자 · 성미경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성모병원 중앙내과¹, 성모병원 일반외과²

유방암은 아시아나 남·동부 유럽에 비하여 서구 국가에서 발생 빈도와 사망률이 높아 western disease로 분류되는

질병이었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현재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는 주요 질환이다. 서구에서는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아 일찍부터 유방암에 대한 연구 결과가 누적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의 발생요인과 관련된 식이조사나 생활습관 등에 관한 조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생활 습관 및 영양소 섭취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의도 성모병원에 유방암 치료를 위하여 내원한 유방암 환자 97명과 연령을 매치시킨 정상 대조군 97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에 관한 설문조사 및 반정량 식품 섭취 빈도조사를 실시하였다.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49.6세였으며, 신장과 체중, 체질량지수는 각각 157 cm, 58.8 kg, 23.7로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자군의 초경 연령은 14.6세로 대조군의 15.4세보다 유의적으로 빨랐으며($p < 0.001$), 생리 주기와 초산연령, 자녀수, 유방암 가족력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거나 현재의 경구 피임제 복용여부는 환자군이 34.4%로 대조군의 15.9%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1$).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형태와, 운동의 정도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음주의 경우 환자군이 과거에 음주를 했거나 현재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6.8%로 대조군 42.2 %에 비하여 많았으며($p < 0.05$), 흡연여부는 두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총 에너지 섭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환자군의 경우 식물성단백질($p < 0.01$), 식물성 지방($p < 0.001$), 식물성 칼슘($p < 0.01$), 식물성 철($p < 0.01$)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또한 환자군은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A ($p < 0.01$), 비타민 C ($p < 0.05$), 비타민 E ($p < 0.001$) 섭취량도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방산 섭취량의 경우에는 총 지방산량은 대조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p < 0.001$), 포화지방산의 섭취량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며, 단일불포화지방산($p < 0.001$)과 다중불포화지방산(0.01), 오메가-3 지방산($p < 0.01$), 오메가-6 지방산($p < 0.05$) 섭취량은 모두 환자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초경의 시작시기와 경구 피임약의 사용, 음주 등의 생활습관 요인이, 영양소의 섭취량에 있어서는 식물성 식품, 항산화영양소, 불포화 지방산의 낮은 섭취가 유방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 임상영양 및 영양중재

[P2-1]

Marasmus and Kwashiorkor by Nutritional Ignorance Related to Vegetarian Diet and Infants with Atopic Dermatitis in South Korea

Sang-Jin Chung · Young Shin Han · Seung Won Chung · Young Yeun Cho¹⁾ · Kang-Mo Ahn²⁾

Hwa Young Park²⁾ · Sang Il Lee²⁾ · Hye Mi Choi³⁾

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Sungkyunkwan University, Division of Nutrition Service¹⁾,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

Department of Pediatrics, School of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Korea²⁾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³⁾

Infants and children with food related Atopic Dermatitis (AD) need extra dietary efforts to maintain optimal nutrition due to food restriction to prevent allergy reactions. However, nutrition ignorance and food faddism make patients even more confused and practice desirable diet more difficul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port the AD patients' malnutrition cases in Korea. We report on 2 cases of severe nutritional deficiency caused by consuming macrobiotic diets which avoid processed foods and most animal foods, i.e. one of vegetarian diet. Case 1, a 12-month-old male child, was admitted with severe marasmus. Because of a history of AD, he was started on mixed grain porridge at 3 month without any breast milk or formula feeding. His caloric intake was 66% and protein intake was 69% of the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Patient's height and weight was under 3th percentile. On admission the patient was unable to crawl or roll over. Case 2, a 9-month-old AD female patient, was diagnosed with kwashiorkor and rickets. She was also started on mixed grain porridge at 100 days due to AD. Her caloric intake has been satisfied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until 7 month, however, she conducted sauna bath therapy and reduced both energy and protein intake at 8 month. The amount of protein intake for case 2 was higher than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but, sauna therapy and severe AD may increase patient's protein requirement resulting